

# 정용진·허영인 회장 등 韓 기업인들 트럼프 취임식 빛낸다

〈신세계그룹〉

〈SPC그룹〉

정용진, 세계 유일 무도회 참석  
허 회장, 상·하원 의원들 회동 예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참석 미정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과 만찬 무도회에 연달아 참석한다. 취임식에 이어 만찬 무도회까지 초청받은 것은 한국 재계 인사 중 정 회장이 유일하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정용진 회장은 이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 당일 저녁에 열리는 무도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무도회에는 트럼프 부부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 회장의 무도회 참석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도회에 참석하려면 당선인 취임위원회나 공화당 측 핵심 인사의 초청이 필요하다.

이번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여러 한국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지만, 무도회까지 참석하는 것은 정 회장이 유일

하다는 게 재계 설명이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 방문한 바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재집권에 공을 세운 '킹메이커'로 떠오르며,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막후 실세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정 회장은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 기반의 트럼프 일가와 같은 '종교적 철학 지향점' 아래 약 5년 전부터 한미 양국에서 깊은 우정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회장은 마라라고를 방문한 뒤 인천공항에서 트럼프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취임식 얘기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러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 바 있다.

신세계그룹은 미국에서 유통사업과 제조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이마트 미국 법인의 지주회사 'PKRH(PK 리테일홀딩스)'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는 '굿푸드홀딩스' 지분을 100% 인수했다. 이듬해인 2019년엔 '뉴시즈스마켓' 지분을

100% 인수했다. 현재 산하에 5개 브랜드 5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래된 공장에서는 연간 200만팩의 냉동·냉장 가공식품을 제조해 미국 내 트레이더조, 코스트코, 크로거 등에 납품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정용진 회장 외에도 한미동맹재단 고문으로 활동하며 한미 교류 활동을 지원해 온 우오현 SM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이 한미친선협회의 추천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허영인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만난 적이 있다. 또한 SPC그룹은 최근 미국 텍사스주 벌리슨시에 1억6000만 달러를 투자해 제빵공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2005년 미국에 진출해 현재 약 2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계열사 SPC삼립은 호빵·크림빵·약과 등 K푸드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SPC그룹은 베스킨라빈스·던킨·셰이크 등 미국의 유명 외식 브랜드를 한국에 소개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취임식 참석 후 한국 경제에 관심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참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신 회장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청와대 국민만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참석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으며, 2019년에는 롯데케미칼이 3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석유화학 공장을 설립한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백악관 집무실에 초청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밖에 미 공화당 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류진 풍산그룹 겸 한국경제인연합회장도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SK케미칼, 2025년 경영 전략 발표

# 안재현 사장 “친환경 분야 등 스페셜티 확장”

고부가가치 소재 부문 라인업 다변화  
“원 팀 스피릿”으로 업계 위기 돌파

“첨유 중심 사업 구조를 범용 소재를 거쳐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으로 성공적 변화를 이뤄낸 혁신 DNA를 바탕으로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뛰어넘고 다가올 미래 사업의 성장을 위해 몰입하겠다.”

안재현 SK케미칼 사장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5년 경영 전략을 8일 밝혔다. ▲스페셜티 소재인 코폴리에스터 포트폴리오 확대 및 원가 경쟁력 강화 ▲순환재활용 소재 글로벌 시장 확대 ▲고객 협업 기반 신규 용도개발 등 진입 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사업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업계의 위기를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안 사장은 “2024년 국내 화학업계의



안재현 SK케미칼 사장이 8일 신년행사서 2025년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SK케미칼

전례 없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우리만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OI(운영 개선) 역량과 스페셜티 케미칼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의미 있는 사업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 “미증유의 불확실성이 초래할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원 팀 스피릿’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 등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 제품·기술 혁신을 통해 스페셜티 라인업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시장 내 입지를 한층 더 높게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능소재와 순환재활용 소재 사업은 고객확대·원가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안 사장은 “SK케미칼은 지속적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스페셜티 소재인 코폴리에스터 중심의 사업 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며 “SK케미칼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스페셜티 영역의 진입 장벽을 높임과 동시에 순환재활용 등 또 다른 스페셜티 영역을 빠르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렌터카업계, 설 연휴기간 특별 프로모션

롯데렌터카 사전예약 할인 혜택  
쏘카 최대 70% 할인쿠폰 지급

렌터카 업계가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 고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비교적 긴 설 연휴 이용객들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터카 G car는 설 연휴 ‘해피뉴 혜택 이어가요’ 프로모션을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이용객들이 사전예약 시 얼리버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

는 사전 예약 기간 쿠폰을 적용하면 대여 요금 최대 70%, 보험료는 최대 20%까지 절약할 수 있다. 단 쿠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여 기간은 설 연휴가 포함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쏘카는 설 연휴 기간 저렴하게 공유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쏘카 앱에서 지급된 쿠폰을 적용하면 요금을 최대 70%까지 할인(24시간 이상) 받을 수 있다. EV 전용 특별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4일 이상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대여료 75%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은 1월 31일까지 지급된다. /양성운 기자 ysw@

## 한국타이어 ‘TBX’ 멤버십 쿠폰 증정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내달 28일까지 트럭·버스 전문 매장 ‘TBX’에서 멤버십 출시 5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행사 기간 내 TBX 멤버십에 가입하는 신규 회원에게 2만원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해당 쿠폰은 전국 182개 TBX 멤버십 매장에서 한국타이어의 중대형 카고 및 덤프트럭용 타이어 브랜드 ▲스마트플러스 ▲스마트워크 ▲라우펜 등 총 34개 상품, 24개 규격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타 쿠폰과 중복 사용 또한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제네시스 G80 블랙.

## 제네시스, ‘G80 블랙’ 판매... 8149만원부터

내·외장에 차별화된 블랙 색상 적용

제네시스가 고급스러운 디자인 강조한 ‘G80 블랙’을 8일부터 판매한다.

G80 블랙은 ‘G90 블랙’, ‘GV80 블랙’, ‘GV80 쿠페 블랙’에 이은 제네시스 네 번째 블랙 모델로, 내·외장 디자인에 차별화된 블랙 색상을 적용해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럭셔리 세단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G80 블랙의 외관은 차량 고유의 차체 라인과 형태감이 더욱 잘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전면 범퍼 그릴 및 라디에이터 그릴 ▲전면 엠블럼 ▲DLO 몰딩 ▲리어 범퍼 몰딩 ▲헤드램프 내부 사이드 베젤 ▲ADAS 레이더 커버 패턴 등 G80 블랙 외장 전반에 블랙 색상을 입혔다.

또 유광 블랙 색상의 20인치 휠과 플로팅 휠캡을 기본 적용했으며, 트렁크 리드 중앙에 다크 그레이 색상의 제네시스(GENESIS) 레터링 엠블럼만 배치해 G80 블랙만의 존재감을 완성했다.

제네시스는 G80 블랙의 실내를 블랙 색상의 사양과 전용 내장재로 마감해 고객의 시선이 머무는 공간의 고급감을 높였다. 또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웰컴·굿바이 애니메이션

선 ▲3D 모델 이미지 ▲그래픽 테마를 새롭게 구현했으며, 스마트 키의 제네시스 로고 및 측면 크롬부에도 블랙 색상으로 G80 블랙만의 특별함을 더했다.

제네시스는 이날 G80의 연식변경 모델 ‘2025 G80’의 판매도 시작했다. 제네시스는 2025 G80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 적용했으며, 실내 색상에 포레스트 블루·에크루 카멜 투톤 조합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울러 운전자가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차량에 접근할 때 사이드 미러 전개와 함께 퍼들램프가 추가로 점등되도록 변경했다.

G80 블랙의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8149만원 ▲3.5 가솔린 터보 8573만원이다. G80의 연식변경 모델은 5899만원부터 시작된다.

/양성운 기자 ysw@



제네시스 G80 블랙 실내.